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15

JCCT 2022-3-3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Anxiety,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junior nursing students

최숙희*

Sook Hee Choi*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3.33 ± 5.28 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학과 친구의 수($F=4.114,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r=.404, p<.001$), 불안($r=.480, p<.001$), 우울($r=.580, p<.001$)과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beta=.158, p=.040$), 우울($\beta=.463, p<.001$), 학과 친구의 수($\beta=.109, p=.044$)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6.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of suicide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24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suicide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was 3.33 ± 5.28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e ideation with number of friend($F=4.114, p=.007$).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perceived stress($r=.404, p<.001$), anxiety($r=.480, p<.001$), depression($r=.580, p<.001$). The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study subjects were anxiety($\beta=.158, p=.040$), depression($\beta=.463, p<.001$), number of friend($\beta=.109, p=.044$),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6.8%.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various education and program that can control the suicide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

I. 서론

대학생의 시기는 새로운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할 전환기이지만 대학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대인

1. 연구의 필요성

*정희원,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접수일: 2021년 11월 24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November 24, 2021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mind4560@ysu.ac.kr

Dep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Korea

관계의 어려움, 진로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소년이나 성인과는 다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1]. 대학생 중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실습수행,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의 노출로 인해 다른 전공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또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임상실습 전 학년에 해당되는 간호학과 1~2학년 저학년 시기는 대학과 학과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맞춤형 지지와 관심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3]. 이 시기에 위기와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우울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수 있다[4]. 대학생의 자살로 인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예방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선 것으로 자살을 예측하고 자살의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인이다[5].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로 자살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에 비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정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7, 8]. 간호대학생 저학년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업문제 및 장애와 진로문제와 다양한 대인관계로 스트레스의 조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9, 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1~2학년 저학년 시기부터 지각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우울이다[11]. 대학생에서 우울함이 있으면 자살시도의 위험은 정상인보다 5배 정도가 높았으며, 자살생각이 지속될 경우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34.8%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4]. 자살의 위험성은 특성상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자살에 대한 언급을 꺼리지만 우울은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15]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살생각의 다른 영향요인으로 불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적응기전으로 오는 불안은 위험한 상황이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반응으로 의욕과 성취동기를 감소시키며, 불안이 심할수록 적응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인격형성과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장애요인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16]. 또한 대학생은 불안정한 시기로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민감하여 그 반응이 성인보다 거칠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며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 시기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7]. 간호대학생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17], 이는 자살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18, 19],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여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 저학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5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9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를 배부하여 23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2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등[20]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과 Seo[2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지각 5문항, 부정적 지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점)까지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eo[21]의 연구에서 부정적 지각 Cronbach's α 는 .77, 긍정적 지각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 부정적 지각 Cronbach's α 는 .90, 긍정적 지각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 불안

불안척도는 Spielberger 등[22]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Hahn 등[23]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태-특성 두 요인으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에서는 성격적인 경향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특성 불안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h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척도는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에서 개발된 총 20개의 문항[24]의 단축형[25]을 Shin [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으로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4)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등[27]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 SSD)를 Shin 등[2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0~2점)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n 등[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90명(84.8%), 남학생이 34명(15.2%)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2세'가 106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36명(60.7%), '2학년' 88명(39.3%)으로 나타났고, 학과 친구의 수는 '3-4명'이 76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1-2명'이 74명(33.0%), '5명 이상' 55명(24.6%), '없음' 19명(8.5%)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90	84.8
	Male	34	15.2
Age (year)	<20	82	36.6
	20-22	106	47.3
	≥23	36	16.1
Grade	1st	136	60.7
	2nd	88	39.3
Number of friend	No	19	8.5
	1-2	74	33.0
	3-4	76	33.9
	≥5	55	24.6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은 1.66±0.79점, 불안 평균 2.32±0.42점, 우울 2.09±2.60점, 자살생각 3.33±5.2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N=224)

Variable	M±SD	Min	Max
Perceived stress	1.66±0.79	0	4.00
Anxiety	2.32±0.42	1.25	3.55
Depression	2.09±2.60	0	10
Suicide ideation	3.33±5.28	0	2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과 친구의 수(F=4.114,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학과 친구의 수는 '5명 이상'이 '없음' 보다 높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3.57±5.42	1.956 (.056)
	Male	1.97±4.17	
Age (year)	<20	2.82±4.89	0.635 (.531)
	20-22	3.69±5.67	
	≥23	3.42±4.94	

Grade	1st	3.33±5.28	0.018 (.986)
	2nd	3.32±5.30	
Number of friend	No ^a	6.68±7.55	4.114 (.007) a>d
	1-2 ^b	3.58±5.31	
	3-4 ^c	3.26±5.04	
	≥5 ^d	1.91±4.06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r=.404, p<.001), 불안(r=.480, p<.001), 우울(r=.580,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우울은 지각된 스트레스(r=.596, p<.001), 불안(r=.659,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r=.628, p<.001)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과 친구의 수를 더미변수(없음, 1-2명=0, 3-4명, 5명 이상=1)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493-.990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0-2.029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0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048,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은 .368로 자살생각을 36.8%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β=.158, p=.040), 우울(β=.463, p<.001), 학과 친구의 수(β=.109, p=.044)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살생각은 3.33±5.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N=224)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
	r(p)			
Perceived stress	1			
Anxiety	.628(<.001)	1		
Depression	.596(<.001)	.659(<.001)	1	
Suicide ideation	.404(<.001)	.480(<.001)	.580(<.001)	1

표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suicide ideation(N=22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183	1.865		-1.707	.089
Perceived stress	.219	.465	.034	.470	.639
Anxiety	1.935	.936	.158	2.068	.040
Depression	.919	.146	.463	6.301	<.001
Number of friend†	-1.271	.629	-.109	-2.021	.044
Adjuste R ² =.368 F=33.048 p<.001					

† Dummy variable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9]의 연구결과 24.0점 Noh [30] 연구결과 6.10점 보다 낮았다. 이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실습이나 전공교과목이 많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자살생각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났으나 저학년 간호대학생 시기에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및 상담센터의 정서적 지지, 우울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한 중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고학년이 되어 실습이나 전공교과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심각해질 수 있어 간호학과 저학년 시기에 교과외 프로그램으로 사전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에서 ‘학과 친구의 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대인관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고, 연령,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2]와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져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관련 변수임을 나타낸 결과[32]를 통해 간호학과에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및 선후배 관계, 멘토멘티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이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고, 자살생각이 스트레스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9]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불안이 높은 군이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난 결과[19]와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불안과 우울도 자살생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하고, 간호학과에 적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확인하여 우울과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 우울, 학과 친구의 수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9, 30, 33]와 유사하고,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3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결과[34]와 유사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및 불안증상은 자살사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만[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과 불안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19]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불안과 우울 각 변수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우울은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우울이 자살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결과[30, 33]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중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자살생각, 우울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35],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36]에서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학년별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학과 친구의 수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33],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37]를 나타낸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친구지지는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38]는 학과 내에서 동아리 활동, 멘토멘티활동 등을 통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변수를 적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도 필요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30, 31][33]와 유사하고,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9],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과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확인한 연구결과[4]를 통해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고 조절하기 위해 불안, 우울 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 우울, 학과 친구의 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불안,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J. Choi,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2, pp. 307-333, 2012.
- [2] S. J. Yu, M. R. Song, and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71-80,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71>
- [3] E. Z. Le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2, pp. 413-425,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413>

- [4] J. Y. Park, and J. K. Kim,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suicide and depress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s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 pp. 167-189, 2014.
- [5] H. J. Lee, and M. H. Kim, "A path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e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4, No. 3, pp. 243-264, 2007.
- [6] W. M.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7.
- [7] J. Y. Heo, and Y. D. Yoo, "Influence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self-esteem", *Family and Culture*, Vol. 24, No. 1, pp. 178-212, 2012. DOI: <https://doi.org/10.21478/famjly.24.1.201203.006>
- [8] S. K. Cha, and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650-658,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9] E. H. Hwang, K. H. Kim, and S. J. Shin, "The effect of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of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1, No. 3, pp. 239-248, 2016. DOI: <https://doi.org/10.21097/ksw.2016.08.11.3.239>
- [10] J. Y. Kim, and J. W. Lee, "The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 Sociology*, Vol. 9, No. 6, pp. 421-432, 2019.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9.06.40>
- [11] S.S. Baek, E. H. Ha, E. N. Ryo, and M. S. Song, "Effects of life stress a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157-163, 2012.
- [12] Y. A. Ahn, J. H. Kim, and B. Y. Choi,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No. 3, pp. 385-405, 2015. DOI: <https://doi.org/10.16983/jksp.2015.12.3.385>
- [13] S. M. Yang, and K.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compa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8, pp. 105-130, 2015.
- [14] J. J. Carballo, C. Llorente, L. Kehrmann, I. Flamarique, A. Zuddas, D. Purper-Ouakil et al,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al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29, pp. 759-776, 2020. DOI: <https://doi.org/10.1007/s00787-018-01270-9>
- [15] J. Y. Park,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 No. 1, pp. 345-375, 2010.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0.41.1.345>
- [16] B. G. You, "An effect of stress, self-esteem on college students'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Vol. 1, No. 1, pp. 33-43, 2010.
- [17] N. Shiaki, M. Shono, and T. Kitamura, "Effects of coping styles and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Japanese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 15, No. 3, pp. 198-204, 2009. DOI: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9.01745.x>
- [18] E. K. Byun, M. Y. Kim, and E. H. Kang,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8, pp. 315-32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8.315>
- [19] S. H. Kim, C. S. Park, B. J. Kim, C. S. Lee, B. S. Cha, D. Y. Lee,...S. J. Lee,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xiety, and sleep q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a city",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Vol. 24, No. 1, pp. 55-61, 2017. DOI: <https://doi.org/10.14401/KASMED.2017.24.1.55>
- [20] S. Cohen, T. Kamar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No. 4, pp. 385-396, 1983. DOI: <http://dx.doi.org/10.2307/2136404>
- [21] J. O. Park, and Y. 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9, No. 3, pp. 611-629, 2010.
- [22] C. D. Spielberger, R. L. Gorsuch, and R. E. Lushene,

-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manual”, Palo Ai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23]D. W. Hahn, C. H. Lee, and J. K. Tak, “Korean standardization study of Spielberger’s STAI”,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10, No. 1, pp. 214-222, 1993.
- [24]L.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No. 3, pp. 385-401, 1977. DOI: <http://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25]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and J. Cornoni-Huntley,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 5, No. 2, pp. 179-193, 1993. DOI: <http://doi.org/10.1177/098926439300500202>
- [26]S. Y. Shin, “Validation study of short forms of the Korean version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1.
- [27]A. T. Beck, M. Kovacs, and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1979. DOI: <http://doi.org/10.1037/0022-006X.47.2.343>
- [28]M. S. Shin, K. B. Park, K. J. Oh, and Z. S. Kim,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 [29]H. S. Cho,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Vol. 12, No. 1, pp. 3-14, 2009.
- [30]G. S. Noh, M. S. Kim, Y. G. Kim, M. G. Noh, S. J. Jwa, N. G. Hong, and M. H. Cho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5, No. 1, pp. 67-76, 2021. DOI: <https://doi.org/10.38083/JKNS.25.1.202102.067>
- [31]J. Y. Bae, Y. J. Kim, E. H. Kim, H. K. Kim, H. J. Kim, S. U. Park.....H. J. Le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25, No. 1, pp. 31-45, 2020.
- [32]S. H. Seo, J. H. Han, and I. J. So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8, pp. 709-724,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8.709>
- [33]M. K. Shin, H. Y. Yi, and J. S. Won,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419-428,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419>
- [34]W. S. Chang,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pandemics (COVID-19)”,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 8, No. 4, pp. 235-246, 2021.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1.8.4.235>
- [35]W. Y. Choi, C. Y. Kim, and S. Y. Le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and suicide though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1, pp. 75-91, 2005.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1.8.4.235>
- [36]C. K. Kim, H. S. Byun, and Y. S. Chae, “Effectiveness of a integrative literatherapy program on the reduction of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d life stres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Vol. 22, No. 1, pp. 103-125, 2006.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1.8.4.235>
- [37]D. C. R. Kerr, L. J. Preuss, and C. A. King, “Suicid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genders-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4, No. 1, pp. 99-110, 2006.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5-9005-8>
- [38]Y. J. Chong, and Y. S. Chong,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1, pp. 67-88, 2007.

※ 이 연구는 2021년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